



‘스마트폰(패드)과 인쇄’ 창간 9주년기념 설문조사 스마트폰이 인쇄에 영향 “73%” “전자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월간 프린팅코리아가 2011년 7월호를 발간하면서 창간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만 9년, 헛수로는 10년 동안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인쇄업계는 해마다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겪어왔다. 프린팅코리아 발간을 위해 밤새워 필름출력 후 교정을 보고 인쇄사에 넘겼다면, 이제는 인디자인으로 편집한 후 바로 PDF를 생성해 CTP 출력을 하고 있다. 일반 기업들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인쇄로 다양한 개인화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다. 10년 전 만해도 영화 속에서만 등장할만한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월간 프린팅코리아는 ‘2011년 창간 9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스마트폰(패드)과 인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잡아 스마트폰이 인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인쇄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와 대표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엮었다. <편집자주>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작년부터는 아이폰과 애플패드, 갤럭시와 갤럭시 탭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는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바꾸어 놓았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팔로워 및 지인들에게 인사와 메시지를 남기고, 새로운 정보와 소식 또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스마트폰(패드)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마케팅과 고객서비스에 SNS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도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트위터(@printingkorea1)와 페이스북(facebook.com/printingkorea)을 운영하며 인쇄 및 관련인, 그리고 인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과도 진솔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통계조사

성별 ① 남자 141명 ② 여자 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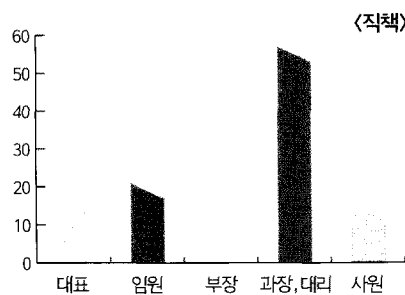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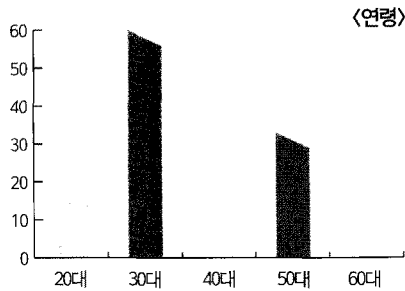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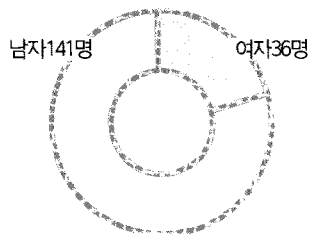
연령 ① 30대 60명 ② 40대 60명 ③ 50대 33명

④ 60대 0명 ⑤ 기타(20대 24명)

직책 ① 대표 57명 ② 임원 21명 ③ 부장 27명

④ 대리 및 과장 57명 ⑤ 기타(직원 15명)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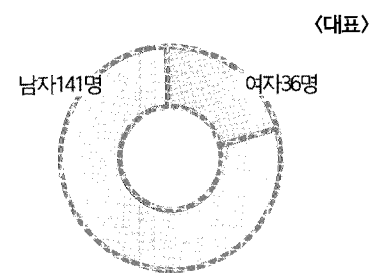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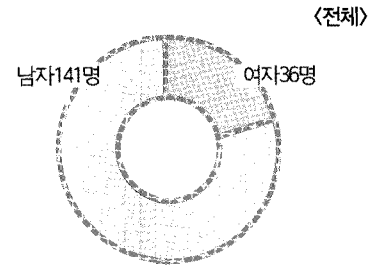


‘스마트폰(패드)과 인쇄의 만남’이라는 설문조사는 이메일, 팩스, 대면 등의 방식으로 남자는 141명 여자는 36명으로 총 177개의 설문 응답이 회수됐다. 세대별로는 30대가 60명, 40대가 60명, 50대가 33명, 20대가 24명으로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기존의 설문조사가 인쇄사 대표를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 설문조사는 대표, 임원, 부장, 과장 및 대리 등 직책에 관련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표가 57명, 임원이 21명, 부장이 27명, 대리 및 과장이 57명, 기타가 15명이었다. 스마트폰 즉 전자기와 관련된 설문조사인 만큼 임원, 부장보다는 대표와 대리 및 과장의 설문응답률이 높았다.

1.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가?

① 사용한다 129명(대표 39명)

② 사용하지 않는다 48명(대표 18명)



★ 스마트폰 비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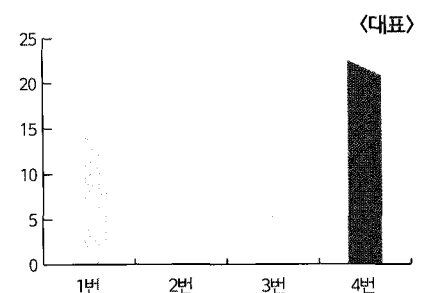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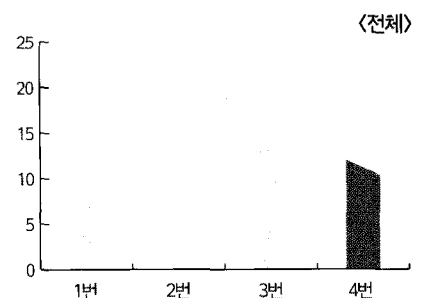
2-1. 스마트폰 사용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①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1명(대표 6명)

② 스마트폰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0명(대표 0명)

③ 사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부럽기는 하다 15명(대표 3명)

④ 별생각이 안 든다 12명(대표 9명)



177명중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29명으로 72.88%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중 대표는 57명이었는데, 이중 39명이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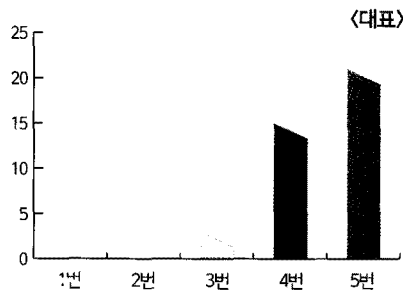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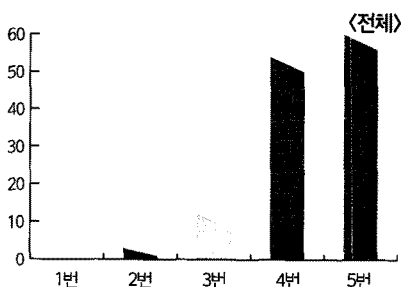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인구는 5152만 명인데, 이중 1144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률은 22%에 불과하지만 인쇄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이용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비사용자중에서도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사람이 48명중 21명으로 나타나 43.75% 즉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스마트폰을 곧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 ‘별 생각이 안 든다’는 응답은 48명중 12명이 응답해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의 수치가 높아 인쇄인들의 경우 스마트폰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이용자

2-2.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스마트폰이 생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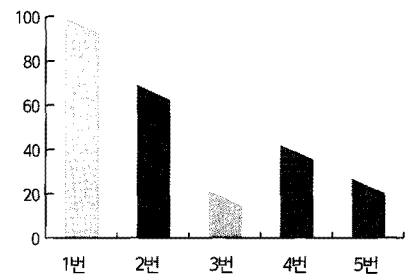
- ① 매우 미약 0명 <대표 0명>
- ② 약간 미약 3명 <대표 0명>
- ③ 보통 12명 <대표 3명>
- ④ 약간 변화 54명 <대표 15명>
- ⑤ 매우 큰 변화 60명 <대표 21명>



177명중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총 129명이며, 이중 대표자는 39명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미약’, ‘약간 미약’은 한명도 없었으며, ‘보통’이 1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간 변화’는 54명, ‘매우 큰 변화’는 60명으로 나타나 총 129명중 114명(88.37%)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양상은 대표자도 마찬가지였다. 대표 39명의 응답자중 ‘매우 미약’, ‘약간 미약’은 한명도 없었으며, ‘보통’이 3명, ‘약간 변화’는 15명, ‘매우 큰 변화’는 21명이 응답했다. 스마트폰 사용 대표 39명중 90%가 넘는 36명(92.30%)이 변화를 느끼고 있어 다른 직책의 인쇄인들보다 변화를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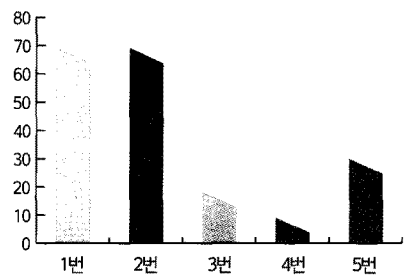
2-3.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어떠한 변화인가? (복수응답)

- ①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 99명
- ②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69명
- ③ 스마트폰 자체가 새로운 여가생활이 됐다. 21명
- ④ 어디서나 업무를 쉽게 볼 수 있어 업무 움직임이 자유로워졌다. 42명
- ⑤ 트위터와 같은 SNS를 함께 이용하게 됐다. 27명



2-4.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통화 문자메시지 등 기본기능 제외) (복수응답)

- ① 인터넷 검색 69명
- ② 애플리케이션 활용 69명
- ③ 사진 캠코더 기능 18명
- ④ 동영상감상 9명
- ⑤ SNS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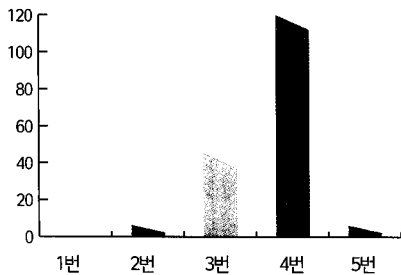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왔다면 어떠한 변화인가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인쇄인들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검색에 이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자유로운 업무, SNS활용, 스마트폰 자체가 여가라는 순으로 생활이 변화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통화 문자메시지 등 기본기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 검색과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SNS활용도 30명으로 3번째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사진 캠코더 기능과 동영상 감상도 그 뒤를 이었다.



★ 공통

3. 스마트폰이 향후 생활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예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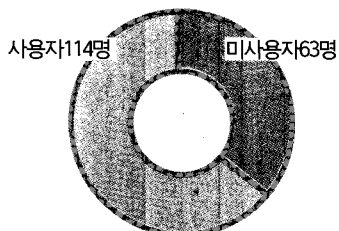
- ① 거의 변화 없을 것 0명
- ② 다소 적은 변화를 가져올 것 6명
- ③ 다소 큰 변화를 가져올 것 45명
- ④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 120명
- ⑤ 잘 모르겠다 6명



질문 2-2가 스마트폰 이용자중 생활의 변화유무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질문 3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에게 '스마트폰이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 중 스마트폰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고, '다소 적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다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45명,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120명으로 나타나 총 177명중 165명이 '스마트폰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7.79%를 나타낸 것이다.

4.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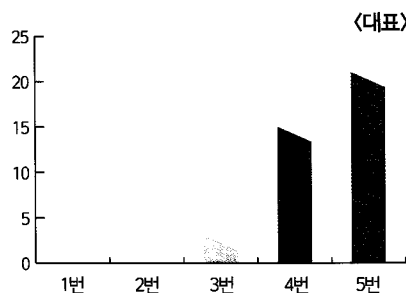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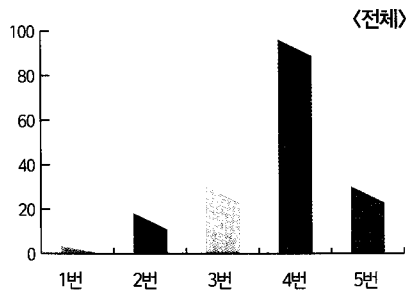
- ① 사용하고 있다 63명
- ② 사용하고 있지 않다 114명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만 일반 인터넷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공통질문으로 선택되었다. 현재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63명(36%),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114명(64%)으로 SNS 비사용자가 사용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5. 스마트폰이 인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가?

- ① 거의 변화 없을 것 3명 <대표 0명>
- ② 다소 적은 영향을 가져올 것 18명 <대표 0명>
- ③ 보통 30명 <대표 18명>
- ④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 96명 <대표 30명>
- ⑤ 매우 영향을 미칠 것 30명 <대표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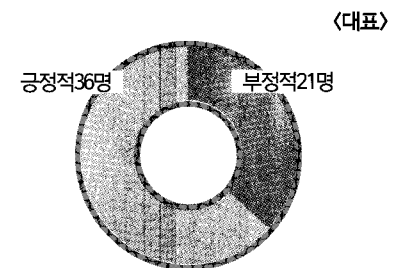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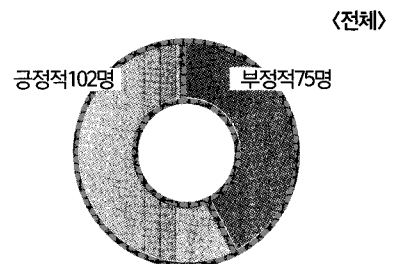
이제 생활이 아닌 본격적으로 스마트폰과 인쇄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 중 스마트폰이 인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명이었고, '다소 적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이었다. '보통'은 30명,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96명,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3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한 반면 인쇄와의 연결고리에서는 영향을 적거나(18명) 보통일 것(3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도 27%였다. 반면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과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6명으로, 70%가 넘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인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대표의 경우 '거의 변화 없을 것'과 '다소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으며, '보통' 18명,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30명,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 18명으로 나타났다.

6. 스마트폰이 인쇄에 영향을 미친다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 ① 긍정적이다 102명 <대표 36명>
- ② 부정적이다 75명 <대표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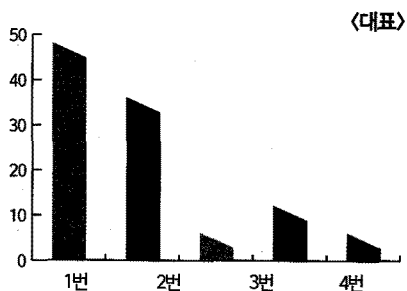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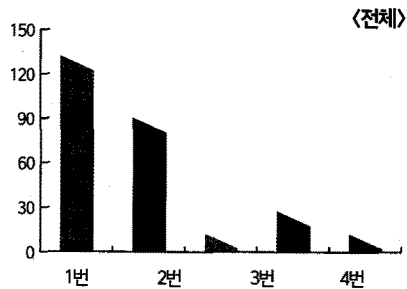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 중 스마트폰이 인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2명(58%),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5명(42%)이었다. 대표자 57명중에서도 '긍정적'은 36명(63%), '부정적'은 21명(37%)으로 대표자들도 스마트폰이 인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대체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인쇄인들은 스마트폰이 인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들이 다른 직급의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이 인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 스마트폰이 인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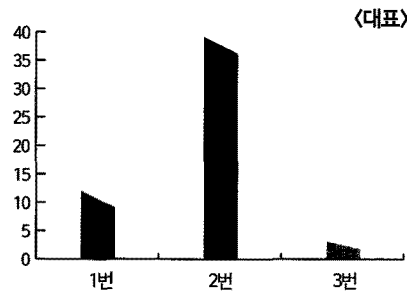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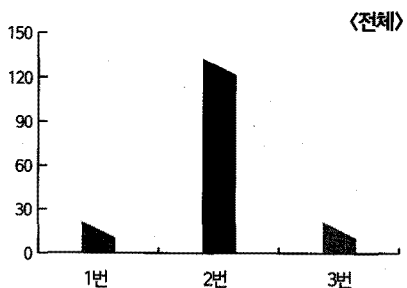
(중복응답가능)

- ① 출판인쇄 132명 <대표 48명>
- ② 상업인쇄 90명 <대표 36명>
- ③ 패키지인쇄 12명 <대표 6명>
- ④ 특수인쇄 27명 <대표 12명>
- ⑤ 기타 12명 <대표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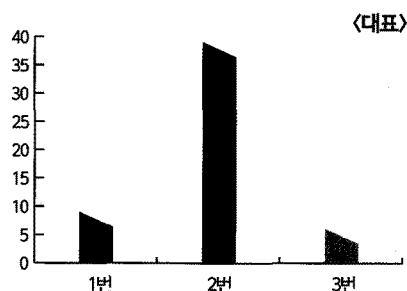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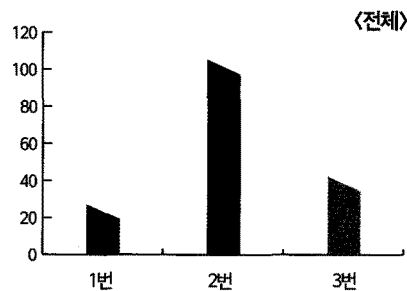
7-1. 출판인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출판인쇄의 증가 21명 <대표 12명>
- ② 출판인쇄의 감소 132명 <대표 39명>
- ③ 영향 없다 21명 <대표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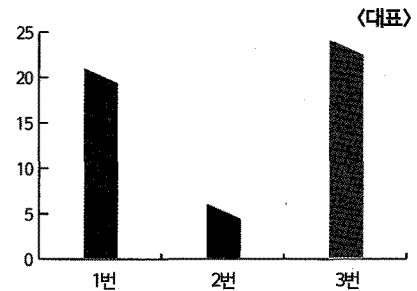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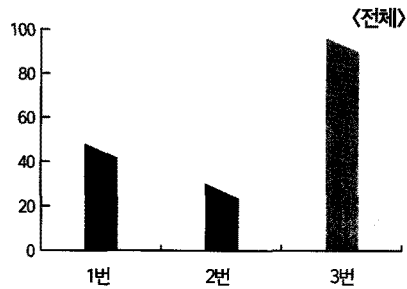
7-2. 상업인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상업인쇄의 증가 27명 <대표 9명>
- ② 상업인쇄의 감소 105명 <대표 39명>
- ③ 영향없다 42명 <대표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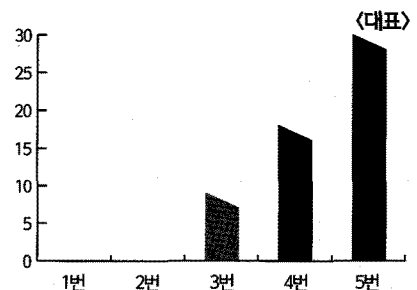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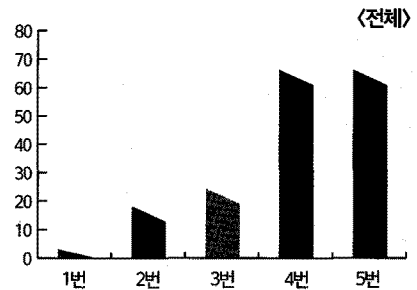
7-3. 패키지인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패키지인쇄의 증가 48명 <대표 21명>
- ② 패키지인쇄의 감소 30명 <대표 6명>
- ③ 영향 없다 96명 <대표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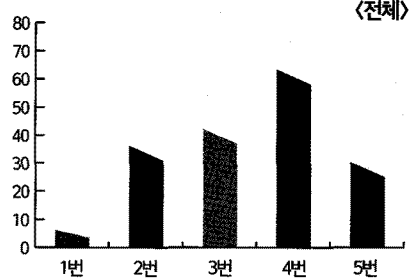
8. 스마트폰이 전자책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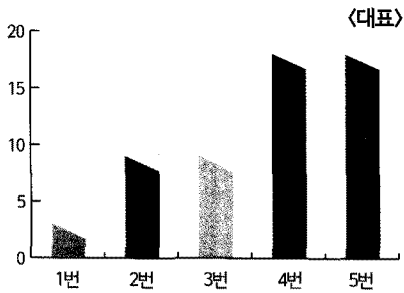
- ① 거의 변화 없을 것 3명 <대표 0명>
- ② 다소 적은 영향을 가져올 것 18명 <대표 0명>
- ③ 보통 24명 <대표 9명>
- ④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 66명 <대표 18명>
- ⑤ 매우 영향을 미칠 것 66명 <대표 30명>



9. 스마트폰이 디지털인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거의 변화 없을 것 6명 <대표 3명>
- ② 다소 적은 영향을 가져올 것 36명 <대표 9명>
- ③ 보통 42명 <대표 9명>
- ④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 63명 <대표 18명>
- ⑤ 매우 영향을 미칠 것 30명 <대표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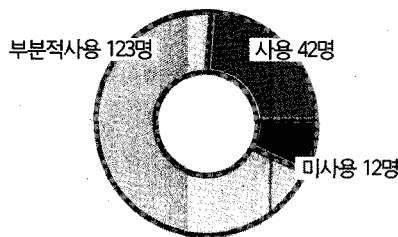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 중 스마트폰이 인쇄에 미치는 분야에 대해 '출판인쇄'가 132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인쇄'가 90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수인쇄' 27명, '패키지인쇄' 12명의 순이었다. 스마트폰이 출판인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는데, '출판인쇄의 증가'는 21명, '영향 없다'는 2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판인쇄의 감소'는 132명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출판인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쇄인이 많았다.

상업인쇄에 대해서도 '상업인쇄의 증가'는 27명이고, '영향 없다'는 4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업인쇄의 감소'는 105명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상업인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쇄인이 많았다. 패키지인쇄에 대해서는 '패키지인쇄의 감소'는 30명, '패키지인쇄의 증가'는 48명, '영향 없다'는 96명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이 패키지인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쇄인이 많았다. 반면 '스마트폰이 전자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변화 없을 것'은 3명, '다소 적은 영향을 가져올 것'은 18명, '보통'은 24명이었다. 반면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66명,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은 66명으로 집계돼 스마트폰이 전자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디지털인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변화 없을 것'은 6명, '다소 적은 영향을 가져올 것'은 36명, '보통'은

42명,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63명,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은 30명으로 조사됐다. 즉 '다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63명으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다소 적은 영향을 미칠 것', '보통',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 36명 42명 30명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치는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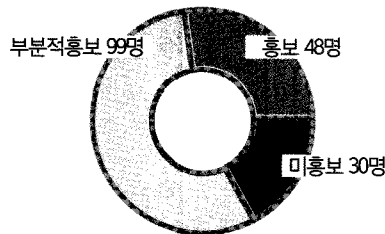
10. 인쇄기기공급업체에서 공장가동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어플을 개발했는데, 사용할 용의가 있는가?

- 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12명
- ② 부가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123명
- ③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42명



11.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사를 홍보할 용의가 있는가?

- ① 하지 않을 것이다 30명
- ② 부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99명
- ③ 전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4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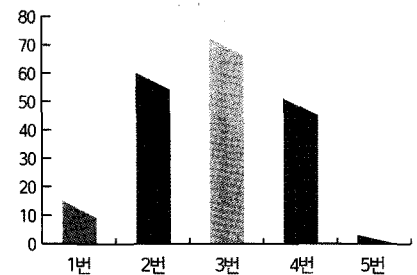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177명 중 '공장가동상황을 알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12명, '부가적으로 사용할 것'은 123명, '전적으로 활용'은 42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홍보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은 30명, '부가적으로 홍보할 것'은 99명, '전

적으로 홍보할 것'은 48명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 현재 인쇄용 어플은 거의 없는데, 어떠한 어플이 생겼으면 좋을까?

- ① 직지 등 인쇄역사관련 15명
- ② 인쇄사 찾기 60명
- ③ 특수인쇄 등의 정보제공 72명
- ④ 인쇄물 견적 51명
- ⑤ 기타 (3명)



현재 아이폰에서는 42만여 개가, 안드로이드는 10여만 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건강 및 피트니스, 교육, 경제, 도서, 비즈니스, 사진, 라이프스타일, 소셜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여행,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 중 자신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혹은 유료로 선택해 다운받을 수 있는데, 2011년 1월 22일 현재 100억 다운로드 횟수를 돌파했다.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아직 인쇄업계와 관련된 어플은 성진애드컴에서 개발한 어플을 제외하고는 몇 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많은 인쇄인들이 인쇄 관련 어플을 원하고 있었다. 인쇄관련 어플 중 '특수인쇄 등의 정보제공' 어플을 원하는 인쇄인이 가장 원하는 어플로 나타났다. 총 72명의 인쇄인이 특수인쇄관련 어플을 원했으며, 뒤를 이어 '인쇄사찾기' 60명, '인쇄물견적' 51명, '직지 등 인쇄역사관련' 15명으로 나타났다. ↻